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성경본문 <신명기 11장 8절 ~ 17절>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신명기는 12장부터 30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과 규례들이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고, 31장에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내용,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이어지는 모세의 축복(33장), 그리고 34장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과 그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40일 간의 특별한 새벽을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비옥함으로 온 세상에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을 정도로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이런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애굽에서처럼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흡수되어 버리는 땅입니다. 일명 “천수답”입니다. 비가 내리는 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약속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욱 커다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곳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상황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땅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 속에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구름을 보듯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곳, 대면하여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약속**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땅.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책임이자 해답이 되시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2.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입니다.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삶의 구체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시고, 땅에서 곡식과 각종 즐거운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때로는 피해를 입게 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과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반석 같은 고백과 순종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약속하신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곳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속히 말씀대로 이루소서.